

문화기관 채용의 계절... 지역 문화계 이목 '집중'

문화재단·비엔날레 사무처장, 5·18기록관 학예실장 공모 각 기관 설립 취지맞는 전문성·소통 등 겸비한 인사 뽑혀야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광주 문화기관의 실무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처장과 학예실장의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문화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사실상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의 마지막 문화기관 실무책임자에 대한 공모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지난달 사무처장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현재 신입 사무처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서류 접수 절차는 마무리됐고 모두 13명의 응모자가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면접은 16일 오전 10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개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는 문화재단은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문화재단 사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무처장이 대표이사사의 경영을 보좌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조직의 인화, 살림살이 등에도 밝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기획과 문화공간에 대한 이해, 문화 지원 및 교육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지역 문화계와의 소통도 중요한 자질로 평가된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다 문화기관의 전례에서 보듯 전혀 지역에서 수긍할 수 없는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와서는 안 된다"며 "사무처장은 사실상 광주 문화행정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무처장 최종 합격자는 오는 22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사무처장이 그만두면서 공석이 된 광주비엔날레도 사무처장을 공모 중이다. 서류 합격자 2명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으며 오는 17일 임용 후보자에 대한 발표가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무처장의 주요 업무가 문화예술, 조직관리, 행정, 경영 등으로 대표 이사를 보좌하고 한편으로 사무처의 인력, 물자, 시설, 예산 등 사무의 조정 및 집행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행정과 예술기관과의 소통 능력 등이 주요 자질로 평가된다.

문화예술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에 꼽히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무처장은 대표를 잘 보좌할 뿐 아니라 행정적 절차에 밝은 인사가 뽑혔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시와 원만한 관계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실장이 관장으로 임용되면서 공석이 된 학예연구실장 공모는 현재 재공모 중이다.

당초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서류 합격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지역 문화기관 채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합한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창립 10주년을 넘어 제2의 도약 과제가 주어진 문화재단.

따라 재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 합격자가 1명뿐이어서 불가피하게 다시 공고를 냈다"며 "적합한 인사를 뽑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공모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 까지이며 서류 전형 합격자는 오는 3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는 추후 별도로 공고된다.

학예연구실장은 5·18기록물 수집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존, 수장고 관리를 맡는다. 또한 관련 연구와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외에도 구

술 영상 관리를 비롯해 전시 등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18을 학예의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기록물을 연구·수집,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은 자칫 내부 직원들에게 유리한 공모가 아닌 가리는 견해도 있다. 지역의 모 인사는 "공모요건에서 밝힌 대로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평화 관련 조사와 연구, 교육 등도 주요 업무임을 감안하면 실무 능력과 함께 5·18 정신을 구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인사가 임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로크와 낭만...

김수미 플루트 독주회

22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김수미(사진) 플루트 독주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로크와 낭만, 그리고 현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레퍼토리는 칸츠의 '플루트 소나타 273번'을 시작으로 루터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윤이상 '소리', 타파넬 '안단테 페스토랄 앤 스케르제티노', 로젠블라트 '카르멘 환상곡' 등이다.

칸츠의 '플루트 소나타'는 플루티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칸츠의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며, 루터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은 플루트 선율의 다양성과 풍부함으로 대중들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곡이다.

윤이상의 '소리'는 플루트가 내는 '소리' 자체에 시선을 둔 무반주 솔로곡이며 타파넬의 '안단테 페스토랄 앤 스케르제티노'는 플루트의 맑고 풍성한 고음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로젠블라트 '카르멘 환상곡'은 재즈의 리듬, 멜로디를 토대로 작곡된 곡으로 '하바네라', '세지밀리아', '호세의 아리아', '집시의 춤' 네 개의 섹션으로 연주된다.

이날 공연에는 전남대 음악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앙상블 밀레 회원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정지연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플루티스트 김수미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로 유학,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베이스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예고 등 다수 학교 플루트 강사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매주 금요일

음악으로 채워지는 '카페미술관'

마인드바디앤소울 '사군' 운영 블루스·인디팝·재즈 등 공연 4월부터 클래식 공연도 예정

코로나 19로 공연장을 찾기 힘든 요즘, 뮤지션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며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카페미술관' (광주시 동구 남동)에서 열리는 'LIVE CONCERT' (라이브 콘서트)는 블루스·포크·락·인디팝·재즈 등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라이브 콘서트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밴드를 비롯해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인디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공연은 카페미술관 정은주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카페가 음악으로 채워질 바라는 마음'에서 카페 환경에 드림과 건반, 음향기기 등을 놓아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의 드림 선생님인 마인드바디앤소울 멤버 '사군' (본명 사성현)에게 공연 기획을 부탁했다.

라이브콘서트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되는데 관객들은 관람료 대신 음료를 주문하면 된다. 오는 18일, 25일에는 리치먼드 그루브나이스, 블루스 정성의 공연이 열리며 3월에는 블루스 밴드 알버트 헤이즈 블루스의 공연과 어쿠스틱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중락의 무대, 정우네막걸리집의 쿠바리틴음 악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달에는 마인드바디앤소울의 블루스 공연과 솔로우진의 인디팝 무대, 이상한계절과 이덕현의 포크콘서트가 열렸고 광주를 중심으로 할



광주시 동구 남동 '카페미술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라이브 콘서트가 열린다.

동해은 NS JAZZ BAND와 싱어송라이터 기드온, 우물안개구리 등도 이곳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사군은 "공연을 보러 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호응이 정말 좋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브 콘서트에서 선보이는 음악들이 익숙하지 않은 장르이다 보니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전지식 없이 오셔서 관람하는 관객들도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르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기 보다는 그냥 공연을 보고 느껴지는대로 감상하길 바랍니다."

사군은 오는 4월부터는 라이브 콘서트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더욱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카페미

술관 주변에 있는 음악공간인 보헤미안 소극장, 재즈바 인더그루브, 라이브클럽 존앤마리아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생각이며, 광주에서 공연을 마친 밴드들이 광양에 있는 스트링바(대표 임형록)도 자리를 옮겨 무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목에 피 하나만 두르면 카페미술관, 존앤마리아 등 여러 곳에서 입맛과 취향에 맞는 공연을 골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생각입니다. 서울 흥대에서 열리는 클럽데이 행사처럼요. 또 카페미술관에서 시작된 문화적인 흐름이 광주를 넘어 전남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광양 유일의 음악공간인 스트링바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문의 062-233-200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초대 전당장 적임자인지 의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아시아문화전당장 임명관련 논평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지난 14일 발표된 초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 이강현 전 KBS 아트비전 부사장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임자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15일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초대 전당장 임명 관련 논평'에서 "현 문화전당보다 위상이 현저하게 낮았던 아 특별 개정 전의 문화전당장 공모 과정에서 거론

되었던 최종 후보자에 비해서도 이번에 임명된 분이 특별한 장점이나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화전당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아서 수장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출발은 문화전당과 전당재단 수장을 제대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지역 서사와 공동체의 경험' 오늘 학술대회

'고려인 마을' 역사마을 만들기 등 지역 공동체와 서사를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특히 지역 서사 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동체가 직면해온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망할 예정이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소(소장 신해선 교수)는 16일 오후 1시 전남대 정보마루 우미컨퍼런스홀에서 '지역 서사와 공동체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역 서사와 공동체의 경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기술 발전과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다양화에 주목한다. 아울러 공동체 경험이 지역 서사와 어떻게 관련될

맺어 왔는지도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로 김경학 전남대 교수가 '광주 '고려인마을'의 '역사 마을 만들기' 과정 서사들'이라는 주제로, 정우라 경북대 교수가 '조선 시대 선비들의 풍류 방식과 문화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지역서사의 변곡점(變曲點)'(손은하 부산대 교수), '집승말 알아듣는 며느리-설화의 공동체 의식과 공생의 원리'(정규식 동아대 교수), '글로벌 시대 민족-지역서사의 자리'(김봉국 전남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문의 062-530-3119. /박성천 기자 skypark@

조진주&양상블 아파시오나토 코로나로 24일 공연 취소

'조진주 & 양상블 아파시오나토' 공연이 취소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진주 & 양상블 아파시오나토' 공연이 연주자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연의 티켓은 예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